

퀴어소설 번역에서의 섹슈얼리티 재현: 번역서 『브로크백 마운틴』 두 편을 비교하며

지윤주* ,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Yoon-ju Jee and Sang-Bin Lee (2020). *Sexuality in a translated queer story: A comparison of two Korean translations of Annie Proulx's *Brokeback Mountain**. This study aims to show how sexuality in a queer story can and should be translated in a different language. For this purpose, two Korean translations of *Brokeback Mountain*, a short story by American author Annie Proulx, are compared in detail, with an emphasis on sex-related language. The two translations, published in 2006 and 2017, respectively, are analyzed in four categories: (1) euphemistic language related to sex, (2) phrases eliciting sexuality-related imagery, (3) the representation of sexuality strengthened by “addition” (as a translation method), and (4) sexuality and/in syntax. The analysis shows that in the 2017 translation the subtle and nuanced meanings of sexuality are expressed in a fairly oblique way; however, in the 2006 translation, such sexuality is reconstructed in a very direct and explicit manner.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summary of the findings and discussion of sexuality in queer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

Keywords: Brokeback Mountain, queer translation, gender translation, sexuality, queer literature

주제어: 브로크백 마운틴, 퀴어번역, 젠더번역, 섹슈얼리티, 퀴어문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생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교수(교신저자)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퀴어(queer) 소설 한 편과 서로 다른 두 번역서를 선정하여 각 텍스트의 퀴어 관련 재현(representation)을 비교·고찰한다. 특히 필자는 퀴어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양상이 두 번역본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퀴어소설에 관한 국내 번역학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연구도 호칭이나 지칭어 번역에 초점을 맞췄고, 본 연구처럼 소설이라는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지 않다. 관련 연구를 일부 살펴보면, 성승은(2018)과 박소영(2018)이 번역 텍스트에서 성소수자 어휘·표현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고찰했고, 신나안(2018)은 번역된 퀴어영화포스터 11편을 통해 퀴어 코드가 축소·삭제되는 현상(이성애화)을 보여준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젠더번역 분야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퀴어담론 내 섹슈얼리티를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대표적인 퀴어소설 *Brokeback Mountain*과 우리말 번역서(역서명: 『브로크백 마운틴』) 두 편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텍스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 양상을 살피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필자가 분석대상 내 퀴어 재현을 섹슈얼리티로 한정해 분석한 이유는 섹슈얼리티가 퀴어와 젠더를 고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1차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세은(2018: 20)에 따르면 성과 사랑 등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소설의 사적 경험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퀴어번역 연구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번역학계의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이어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할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필자가 파악한 두 번역문의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간략히 논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퀴어(queer)란 비규범적 성 정체성을 가리키는 포괄적 지칭어로, 이성애 지배

담론의 헤게모니를 벗어나는 다채로운 성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퀴어 이론을 상세히 논한 드 로레티스(de Lauretis, 1991)에 따르면 퀴어 관점으로 보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란 남성 중심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윤조원, 2009: 137).

퀴어는 보편적 이성애 규범과의 불일치이며 따라서 그 논의의 중심에는 섹슈얼리티가 존재한다. 섹슈얼리티는 성적 특질을 지칭하는 추상명사로, 섹스(sex)나 젠더(gender)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지적·감각적 영역, 나아가 관련 이데올로기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설혜심, 2006: 4).

번역학에서 퀴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연구는 하비(Harvey, 1998)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였다. 배어와 케인들(Baer & Kaindl, 2018)은 섹슈얼리티와 동성애(homosexuality)를 다루는 연구들이 퀴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비의 연구를 “사막에서의 목소리”(a voice in the desert)로 비유한다(ibid: 1). 하비는 영불 번역에서 “동성애자 담화”(camp talk)가 가시화 혹은 비가시화 되는 양상을 사회문화적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퀴어번역에 관한 해외 연구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가령 저널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는 “Translation and LGBT+/ Queer Activism”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호(2021년, 2호)를 준비 중에 있고, 라우트리지(Routledge)에서는 *Queer in Translation*(2017), *Queering Translation, Translating the Queer*(2018)라는 편저를 출간하였다. 특히 이 편저들은 번역의 성애화(sexualization), 행동주의(activism), 퀴어이론과 번역실천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영어권 이외의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텍스트 장르도 아우르고 있다. 일레로 찬(Chan, 2017)은 “급진적 번역”(radical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서유기』(The Journey to the West)의 일본만화(manga) 버전에 나타난 “트랜스젠더리즘”(transgenderism)을 고찰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외적으로 유미향 외(2012)는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을 기반으로 번역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 어휘가 다르게 번역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상빈(2016)은 영화 *Sex and the City 2*의 자막번역에서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어휘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그는 “스노우 퀸”(Snow Queen)이라는 게이 슬랭(gay slang)의 번역을 설명하면서 자막에 유머만 남고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보다 최근에는 박소영(2018)이 『레라미 프

로젝트』(출판 번역물과 무대 대본)로 성소수자 담론을 탐구하였고, 성승은(2018)은 『엠 아이 블루?』 등의 청소년 대상 번역서 4권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성소수자 지칭어의 차이가 출발문화권과 도착문화권의 성소수자 지칭 어휘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국내 퀴어번역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퀴어텍스트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박소영(2018), 성승은(2018), 신나안(2018), 노혜민(2020)이 퀴어를 심도 있게 다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관련 연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된 퀴어텍스트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번역본 간의 차이를 비교한 논문도 적다. 만일 위상이 높은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두 번역본 간의 차이를 소개할 수 있다면 퀴어 재현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언어·문화 간에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동일 소재인 *Brokeback Mountain*의 번역을 분석한 연구로는 팜(Pham, 2011), 류(Liu, 201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본고와 함께 서구권의 퀴어 소설이 아시아 국가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팜(2011)은 *Brokeback Mountain*의 퀴어적 요소가 베트남 번역본에서 완전히 자국화 되었음을 보여준 후 그 함의를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전쟁 등의 경험으로 인해 서구에 대한 배타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그 결과 퀴어를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류(Liu, 2017)는 *Brokeback Mountain*의 중국어 번역이 검열로 인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동일 작품을 검열 없이 재번역(전문가 번역과 인터넷 번역)할 경우 어떤 모습을 띠는지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섹슈얼리티에 대한 삭제와 왜곡은 공적 검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번역가의 자가검열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

3.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Brokeback Mountain*(역서명: 『브로크백 마운틴』)은 애니 프루(Annie Proulx)의 단편집 *Close Range: Wyoming Stories* 중 마지막 작품이다. 애니 프루는 1993년 여성 최초로 펜포크너상(PEN/Faulkner Award)을 수상하고, 이후 풀리처상까지도 거머쥐면서,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가

이다. *Brokeback Mountain*은 뉴욕커(The New Yorker)에 게재되어 호평을 받았고 원작으로 만든 동명의 영화(제63회 골든글로브 4관왕)를 통해 더욱더 유명해졌다.

『브로크백 마운틴』은 퀴어 서사와 관련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남승숙, 2009; 설혜심, 2006). 특히 이 소설은 가부장적 집단규범을 내면화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통찰력 있게 묘사하고 집단 지배 질서로 인해 소수자가 겪는 폭력과 절망도 섬세하게 다룬다. 작품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방목 일을 맡은 잭(Jack)과 에니스(Ennis)는 우연히 성 관계를 갖고 서로에 대한 욕구를 깨닫는다. 하지만 이내 헤어진 그들은 각자 ‘평범한’ 결혼생활로 돌아간다. 이후 잭과 에니스는 재회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관계를 지속한다. 은밀한 만남을 이어 오던 중 에니스는 잭이 퀴어 혐오자들로 인해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잭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비참한 삶을 받아들인다.

본 연구에서 『브로크백 마운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로크백 마운틴』은 퀴어 담론과 관련해 대표성이 높은 작품이며, 원저자의 위상도 매우 높다. 이는 작품과 관련된 학술자료가 미디어 문화학, 젠더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시점에서 서로 다른 두 번역서가 존재한다. 특히 두 번역서의 출간시기가 크게 다르고 번역자의 스타일도 달라 보였기 때문에 필자는 두 번역서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¹⁾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표 1. 『브로크백 마운틴』 번역서 소개

역서종류	역서 제목	번역자	출판년도	출판사
번역문 1	브로크백 마운틴	조동섭	2006년	Media 2.0
번역문 2	브로크백 마운틴	전하림	2017년	에프

1) 국내에서 잘 알려진 퀴어 문학 작품, 가령 사라 워터스(Sarah Waters)의 『뎅거 스미스』는 서로 다른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자후기를 포함해 각 번역서의 파라텍스트(paratext)에는 두 번역(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두 번역자는 모두 역자후기를 통해 저자의 섹슈얼리티 작법이 우회적이고 모호한 탓에 번역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조동섭(번역문 1의 번역자)은 원문의 까다로움에 대해 “번역투가 아닌 방식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우리말에 맞게 그 느낌을 살려” 번역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p. 364). 반면, 전하림(번역문 2의 번역자)은 “원서에서도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까다로운 대로, 애매한 부분은 애매한 대로 … 최대한 있는 그대로”(p. 399) 번역하면서 원문과 등가적 번역전략을 모색하였다.

두 번역의 출간에는 약 10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2000년대 출판된 번역문 1과 비교적 현시점에 가까운 번역문 2는 서로 다른 시대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번역문 2가 출판될 무렵에는 번역문 1이 출판될 무렵보다 퀴어 이슈가 훨씬 가시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0년에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는 70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6만여 명이 참석했고, 최근 동성애 이슈는 정치권의 주요 의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문 1이 번역될 시점의 문화적 배경은 퀴어 인식이나 그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번역자 조동섭은 『정키』, 『퀴어』 등을 번역하며 최근까지 “영미 게이 문학의 안내자”(Podfanatic, 2014)라는 수식어로 소개되기도 했다.

필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첫째, 두 번역문을 비교하며 읽은 후,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다만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유형의 예시는 본 논문에서 배제하였다. 둘째, 수집한 번역사례를 주제 및 성격에 따라 묶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 관련 완곡어”, “섹슈얼리티 심상(心想)”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번역사례를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브로크백 마운틴』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번역을 (1) 섹슈얼리티 관련 완곡어, (2) 섹슈얼리티 심상, (3) 첨가를 통한 섹슈얼리티 강화, (4) 퀴어 섹슈얼리티와 문장구조로 항목화하여 살펴본다.

4.1. 섹슈얼리티 관련 완곡어

두 번역문은 [예시 1], [예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문의 완곡한 쿼어 섹슈얼리티를 다른 방식으로 재현한다.

[예시 1]

원문: Jack's choked "gun's going off," then out, down and asleep. (p. 262)

번역문 1: 잭의 “쌀 것 같아”하는 갈라진 소리뿐. 그리고 사정했고 쓰러졌고, 잠들었다. (p. 325)

번역문 2: ‘쌀 것 같아.’라는 잭의 숨넘어가는 소리로 끝이 나면서 쓰러져 잠에 들었다. (p. 357)

[예시 1]은 남성 주인공 간의 성교가 사정(射精)과 함께 종결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사정을 뜻하는 “out”은 섹슈얼리티 관련 어휘라기보다는 일반 어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문은 성관계의 과정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성교의 과정을 개략적으로만 묘사한다. 이와 관련해 두 번역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번역문 1에서는 확연한 성적 어휘인 “사정”을 통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끝이 나[다]”라는 일반적 의미의 서술어를 사용하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원문과 마찬가지로 사정을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묘사한다.

[예시 2]²⁾

원문: “... I sure wrang it out a hundred times thinkin about you. You do it with other guys? Jack?”

“Shit no,” said Jack, who had been riding more than bulls, not rolling his own. (p. 268)

번역문 1: “... 네 생각하면서 수백 번도 넘게 딸딸이를 치기는 했지만, 넌 다른 놈들하고 해? 잭?”

“염병할, 아니지.” 잭은 황소보다 사람에게 더 많이 올라탔으나 자위는 하지 않았다. (p. 334)

번역문 2: “... 너를 생각하면서 수백 번 혼자는 해 봤어도, 너는 다른 자식들이랑 해, 잭?”

2) 예시 2는 곧이어 살펴볼 “섹슈얼리티 심상”의 사례로도 설명할 수 있다.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없지.” 사실 소말고 다른 걸 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책은 사실대로 풀어놓지 않았다. (p. 366)

[예시 2]는 주인공 에니스가 수음(手淫)에 대해 고백하는 부분이다. 원문은 수음을 “*wrang it out*”(원래 ‘젖은 물건을 짜내어 수분을 제거하다’라는 뜻임)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rolling his own*”은 성적 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원래 이 표현은 ‘스스로 담배를 말다’ 혹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등을 뜻한다.

[예시 2]에서도 두 번역문은 상반된 묘사방식을 보여준다. 먼저 번역문 1의 경우 원문과 달리 명시적 성적 어휘인 “딸딸이”(수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와 “자위”를 통해 수음을 매우 거칠게, 직설적으로 묘사한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되 완곡한 방식을 활용한다. 밑줄 친 “혼자는 해봤어도”는 수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대로 풀어놓지 않았다”는 ‘자위를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맥락상으로만 전달한다.

4.2. 섹슈얼리티 심상(心象)

두 번역문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심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예시 3]~[예시 5]가 그렇다.

[예시 3]

원문: Ennis ... entered him. (p. 261)

번역문 1: 에니스는 ... 책에게 삽입했다. (p.325)

번역문 2: 에니스는 ... 그의 안으로 들어갔다. (p. 356)

[예시 3]은 주인공 책과 에니스가 처음 성관계를 갖는 상황으로, 작품 전체의 중심 서사가 전개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번역문 1에서는 ‘~에게 삽입하다’라는 거칠고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성관계의 심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반면 번역문 2의 경우에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성교와 관계 없는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심상을 구축한다.

[예시 4]

원문: They went at in a silence except for a few sharp intakes of breath and Jack's choked "gun's going off." (pp. 261-262)

번역문 1: ...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오로지 거친 들숨소리와 잭의 "삐 갈 이" 하는 갈라진 소리뿐. (p. 325)

번역문 2: ... 여러 차례 거칠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와 '쏠 것 같아.'라는 잭의 숨넘어가는 소리로 ... (pp. 356-357)

[예시 4]에서 "gun's going off"는 남성의 성기와 사정의 심상을 동시에 나타낸 표현이다. 원문은 이와 같은 은유를 통해 퀴어 섹슈얼리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번역문 1의 "삐 갈 이"는 사정의 순간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성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섹슈얼리티 심상을 유발한다. 반면 번역문 2의 경우 gun의 물리적 형질을 그대로 표현한 "쏠 것 같아"로 번역했는데, 이 표현은 어색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사정'보다는 '총'과 관련된 심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번역문 1에 비해 섹슈얼리티 심상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예시 5]

원문: "Christ it got a be all that time a yours ahorseback makes it so goddamn good ..." (p. 267)

번역문 1: "젠장, 니가 올라타는 거 미칠 것 같이 좋아 ..." (p. 332)

번역문 2: "젠장, 그동안 네가 말을 많이 타서 그런가. 어쩔 더 끝내주던 걸?" (p. 364)

[예시 5]는 잭이 성관계 후 희열감을 표출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잭의 성적 만족감은 원작의 핵심 소재이자 심상인 카우보이와 말(horse)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 밑줄 친 "ahorseback"은 사전적 의미로 "on horseback"을 뜻하는데, 이는 카우보이 심상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킨다. 그런데 번역문 1—혹자에 따라 오역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카우보이와 관련된 심상이 나타나지 않고 성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상(체위) 만이 표현되었다. 반면 번역문 2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체위에 관한 내용을 카우보이 심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3. 첨가를 통한 섹슈얼리티 강화

아래 [예시 6], [예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번역은 첨가 유무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다르게 재현한다.

[예시 6]

원문: "... You do it with other guys? Jack?" "Shit no", said Jack, who had been riding more than bulls ...(p. 268)

번역문 1: "... 넌 다른 놈들하고 해? 잭?" "엄병할, 아니지." 잭은 황소보다 사람에게 더 많이 올라탔으나 ... (p. 334)

번역문 2: "... 너는 다른 자식들이랑 해, 잭?"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없지." 사실 소 말고 다른 걸 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 (p. 366)

[예시 6]에서 원문은 성관계를 묘사하는 단어로 "ride"를 사용한다. 여기서 동사 ride는 일상 어휘이기도 하지만 성적 맥락에서는 성교와 체위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번역문 1의 경우 원문에 없는 "사람에게"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타다'(ride)와 호응하는 대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사람과의) 성관계를 황소타기보다 '더 많이 했다'는 표현은 원문('소 말고 다른 걸 탔다')보다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번역문 1은 잭의 성관계 대상을 첨가, 확대 해석함으로써 원문보다 섹슈얼리티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번역문 2는 원문에 가깝게, 성교의 대상을 막연하게 표현한다. 목적어 "다른 걸"은 성관계 대상인 '사람'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는다.

[예시 7]

원문: And under that, though, anyway, what you like to do don't make too many babies. (p. 271)

번역문 1: 알마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쨌든 당신이 좋아하는 식으로 뒤로만 헤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지하고 생각했다. (p. 338)

번역문 2: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긴, 당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는 애를 만들 일이 별로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 (p. 371)

[예시 7]은 에니스와 아내 알마의 성관계가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동성애적 체위임을 보여준다. 에니스는 동성애를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애 규범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 가부장적 가족 형식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예시 7]에서 알 수 있듯이 알마와 에니스의 성생활은 항문성교로 이루어진다. 원문은

성적 체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독자는 문맥을 통해 원문의 우회적 표현이 항문성교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모호한 체위 묘사에 대해, 번역문 1에서는 “뒤로만 해서는”을 첨가해 체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즉, 번역문 1은 첨가를 통해 원문의 섹슈얼리티를 강화한 것이다. 반면 번역문 2의 “당신이 좋아하는 쪽”은 원문과 마찬가지로 체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4.4. 퀴어 섹슈얼리티와 문장구조

두 번역은 [예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장구조와 결속성의 차이로 인해 퀴어 섹슈얼리티를 다르게 재현한다.

[예시 8]

원문: They seized each other by the shoulders, hugged mightily, squeezing the breath out of each other, saying son of a bitch, son of a bitch; then, and as easily as the right key turns the lock tumblers, their mouths came together, and hard, Jack's big teeth bringing blood, his hat falling to the floor, stubble rasping, wet saliva welling, and the door opening and Alma looking out for a few seconds at Ennis's straining shoulders and shutting the door again and still they clinched, pressing chest and groin and thigh and leg together, treading on each other's toes until they pulled apart to breathe and Ennis, not big on endearments, said what he said to his horses and daughters, "Little darlin." (pp. 265-266)

번역문 1: 두 사람은 어깨를 움켜잡았다. 서로의 숨을 쥐어짜다. 힘껏 껴안으며 개자식, 개자식, 읊조렸다. 꼭 맞는 열쇠가 자물쇠를 풀 듯 세계, 그것도 세계, 둘의 입이 하나로 맞닿았다. 잭의 큰 이빨 때문에 피가 났다. 잭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짧게 깎은 수염이 사각거렸고 축축한 침이 흘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알마가 비틀린 에니스의 어깨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꼭 부둥켜안고 있었다. 가슴과 사타구니와 허벅지와 다리를 맞붙이고 서로의 발끝을 밟은 채 숨이 막혀서야 비로소 몸을 뗐다. 그리고 애정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에니스가 자기 말과 딸들에게나 하던 말을 했다. 내 사랑. (pp. 330-331)

번역문 2: 그들은 어깨를 부여잡고 열렬히 껴안았고, 서로의 숨을 쥐어짜며, 이 개자식, 이 개자식, 하고 말했고 곧이어, 딱 맞는 열쇠 구멍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이 맞닿았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격렬했던

지, 책의 커다란 이 때문에 피가 났고, 그의 모자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까칠한 수염이 뺨을 비볐고, 축축한 침이 절로 흘러나왔다. 그때 문이 열렸고, 잔뜩 힘이 들어간 에니스의 어깨가 엘마의 눈에 들어왔다. 문은 몇 초간 열려 있다가 다시 닫혔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가슴과 사타구니와 허벅지와 다리가 맞닿도록 서로의 발끝을 뺀 채 부둥켜안고 있다가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애정 표현에는 영 소질이 없는 에니스가 그의 말과 딸들한테나 하는 말을 그를 향해 했다. 내 사랑.
(p. 362)

[예시 8]에서 책과 에니스는 오랜만에 재회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내 엘마는 그들의 관계를 하나하나 무기력하게 지켜본다. 이 대목은 두 남자의 포옹-애무 장면을 매우 섬세하게, 연결된 장면으로 묘사하는데, 원문의 경우 복문단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이 길고 설명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묘사방식은 두 인물의 애무가 클로즈업되면서 천천히, 연속적으로 설명되는 효과를 준다. 그런데 번역문 1에서는 원문을 13개의 문장으로 잘라 각 메시지를 짧게 표현했고, 그 결과 문장 호흡이 짧아지면서 원문이 주는 속도감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반면 번역문 2에서는 쉼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최대한 문장을 분절하지 않았다. 비록 원문과 동일 수의 문장은 아니지만 번역문 2는 문장 다섯 개를 통해 원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섹슈얼리티의 호흡과 장면전환 효과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퀴어 번역의 사례를 탐구하기 위해 소설 *Brokeback Mountain* 과 두 번역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필자는 분석 범위를 퀴어 섹슈얼리티로 한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섹슈얼리티 관련 완곡어”, “섹슈얼리티 심상”, “첨가를 통한 섹슈얼리티 강화”, “퀴어 섹슈얼리티와 문장구조”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섹슈얼리티 관련 완곡어”의 경우 번역문 1은 번역문 2와 달리 원문의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으로, 거칠게 묘사한다. 요컨대 번역문 1에서는 “사정”, “딸딸이”, “자위” 등의 노골적

인 어휘가 사용된 반면, 번역문 2에서는 “끝이 나다”, “혼자 하다”, “사실대로 풀어놓지 않다” 등의 (원문과 비슷한) 우회적인 또는 덜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둘째, “섹슈얼리티 심상”에 있어서도 두 번역의 차이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번역문 1에서는 “[성기] 삽입”, “싸다”(사정), “올라타다”(체위) 등의 어휘로 성행위의 심상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전달한 반면, 번역문 2에서는 “들어가다”, “[충을] 쏘다”, “말을 타다” 등을 활용해 섹슈얼리티의 심상을 간접적으로만 표현한다. 셋째, “첨가물 통한 섹슈얼리티 강화”의 경우 번역문 1은 번역문 2와 달리 메시지를 소폭 첨가하여 원문에서 벗어나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번역문 1에서는 “사람에게 [올라타다]”, “뒤로만 하다”(항문성교) 등을 첨가하여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원문보다 구체화하였다. 넷째, 번역문 1은 “퀴어 섹슈얼리티와 문장구조” 측면에서도 원문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번역문 1에서는 남성 주인공 간의 걱정적인 재회 장면을 여러 개의 단문으로 분절함으로써 원문에 나타난 호흡과 장면 전환을 달리 표현한 반면, 번역문 2에서는 원문의 문장구조를 가급적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필자가 살펴본 네 가지 측면만을 본다면, 번역문 2가 번역문 1보다 원문의 구조와 메시지에 좀 더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 두 번역문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필자가 보여준 사례는 전체 작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번역을 평가하는 잣대나 기준은 필자가 살펴본 섹슈얼리티 이외에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역문이 다른 시대에 번역·출판·수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번역이 해당 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 예컨대 *Brokeback Mountain*이라는 원작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부족하고 퀴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해도 부족한 15년 전 상황이라면, 번역문 1이 번역문 2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또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번역문 1의 경우처럼 보다 직설적인 번역을 선호하는 독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원문의 퀴어 섹슈얼리티가 *Brokeback Mountain*의 경우처럼 미묘하고 우회적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섹슈얼리티의 번역은 좀 더 신중하게, 원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분석대상의 경우 퀴어 섹슈얼리티는 원저자의 문체와도 직결되며 작품 속에서 퀴어가 수용되는 시대적 배경과도 맞물려 있다. 퀴어가 여러 젠더 담론에서 매우 미묘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럼 퀴어 섹슈얼리티의 미묘한 메시지는 좀 더 원문 중심으로 묘사되는 것이 안전하다.

본 연구에는 최소한 세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번역가의 성 정체성이나 출판사의 영향 등을 인터뷰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만일 번역 행위자(translation actors) 및 번역 결정(translation decisions)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번역에 개입하는 다양한 주변 요소, 가령 집단의 문화나 시대적 차이를 텍스트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만일 각 번역본의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사례 분석을 추가할 수 있었다면 분석 결과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두 번역의 차이를 수용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독자반응조사(reader response survey) 혹은 독자 관점을 수용하는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자주 논의되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벗어나, 조금은 생소한 ‘퀴어 섹슈얼리티’를 탐구함으로써 국내 번역학의 논의 범주를 조금이나마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본 연구는 그간의 퀴어번역 연구가 퀴어의 “비가시성” 혹은 “이성애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셋째, 필자가 제시한 사례들은 번역실무자들에게 퀴어소설과 퀴어번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퀴어문학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이슬기, 2019/12/25), 본 연구의 분석사례들은 번역실무자뿐만 아니라 번역(학) 전공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남승숙. (2009). 「금지된 꿈: 『브로크백 마운틴』의 동성애」 『영미문화』 9(1): 141-162.
- 노혜민. (2020). 「출판사와 번역사의 퀴어 정체성에 따른 번역의 차이: 그래픽 노블 *Fun Home: A Family Tragicomic*의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18). 「레라미 프로젝트(The Laramie Project)의 성소수자 지칭어 번역」 『통역과 번역』 20(1): 19-42.
- 설혜심. (2006). 「더 풍부한 ‘섹슈얼리티’의 역사를 위해: 『브로크백 마운틴』 다시 읽기」 『역사비평』 75(5): 422-445.
- 성승은. (2018). 「번역을 통한 사회 참여-청소년 성소수자 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 9(4): 287-302.
- 신나안. (2018). 「퀴어영화포스터 번역에서 퀴어코드의 이성애화」 『통역과 번역』 20(3): 21-48.
- 오세은. (2018). 『문학과 섹슈얼리티』 고양: 좋은땅.
-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 (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143-173.
- 윤조원. (2019). 「타자텍스트의 불가사의 (enigma) 와 퀴어한 읽기: [바틀비] 와 바틀비」 『미국소설』 26(2): 55-81.
- 이상빈. (2016). 「자막번역에 의한 여성 재현의 변이: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 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2): 59-80.
- Baer, B. J. and Kaindl, K. (2018). *Queering Translation, Translating the Queer: Theory, Practice, Activism*. London: Routledge.
- Chan, L. T. (2017). Transgenderism in Japanese manga as radical translation: The Journey to the West goes to Japan. In B. J. Baer and K. Kaindl (eds.), *Queering Translation, Translating the Queer: Theory, Practice, Activism* (pp. 96-111). London: Routledge.
- De Lauretis, T. (1991). Queer theory: Lesbian and gay sexualiti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3(2): 3-18.
- Harvey, K. (1998). Translating camp talk: Gay identities and cultural transfer. *The Translator* 4(2): 295-320.
- Liu, Q. (2017). *Internet Translation, Censorship and Homosexuality: Translating Brokeback Mountain in Chinese Communities*. Doctoral dissert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Pham, L. (2011). Western Others (and ‘Other’Westens). In C. Larkosh (eds.), *Re-engendering Translation* (pp. 111-126). Manchester: St. Jerome.
- <인터넷 참고자료>
- 이슬기 (2019/12/25). 여성·퀴어·SF...웹에 스민 다양성. 서울신문. Retrieved on September 25, 2020,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6025003> .

Podfanatic. (2014). Episode: [2회] 영미 게이 문학의 안내자 - 번역가 조동섭 (Podcast “여섯 빛깔 무지개” 에피소드 중 일부). Retrieved on September 25, 2020, from <https://podfanatic.com/podcast/-11561/episode/2-20152150>.

<분석텍스트>

전하립 역 (2017). 『브로크백 마운틴』. 서울: media 2.0.

조동섭 역 (2006). 『브로크백 마운틴』. 서울: 푸른책들.

Proulx, A. (1999). *Close Range: Wyoming Stories* (Vol. 1). New York: Simon and Schuster.

This paper was received on 31 October 2020; revised on 25 November 2020; and accepted on 5 December 2020.

Author's email address

cobain1818@naver.com

tandistudies@daum.net

About the author

Yoon-ju Jee is a doctoral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Her research interests are feminist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on.

Sang-Bin Lee is Professo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 and the Director of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 at HUFS. He is the author of many journal articles, including those in *The Translator*, *Interpreting Perspectives*, and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In 2016, he was named “nonmunŭi chillo ttajyŏbon 40se niman usu yŏn’guja” (the Best Researcher among those aged below 40) in the Arts and Humanities in “Chungang ilbo taehakp’yŏngga” (JoongAng Ilbo University Rankings).